



대학강사들의 실태와 현황

임성윤 | 한국비정규직대학교수노동조합 위원장

1. 대중매체에 나타나는 시간강사의 모습

우리 사회에서 수년동안 계속해서 문제로 제기되고 있고, 모두 동감하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대학강사 문제이다. 대학강사들은 '플란더스의 개'와 '강원도의 힘' 등의 영화에서 무기력한 사회적 존재로 실감나게 나오면서 영화의 재미를 더해주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즘'이라는 연속극에 허위로 가득 찬 남성의 대표로 부상했던 '장진구'라는 인물도 부정확한 방법으로 교수가 되기 전까지는 대학강사였고, 교수가 되기 전까지의 모습은(일부 교수들이 그것을 보고 더 흥분하기도 했지만) 강사들의 마음을 뜨겁하게 하는 측면이 있었다. 그리고 요즘 개봉한 영화인 '결혼은 미친 짓이다'라는 영화에서도 남자 주인공의 직업이 대학강사라는데 또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는지 궁금하기도 하다. 어쨌든 대학강사의 처지가 어렵다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작년부터 나는 강사노조 간부로 활동해왔다. 그러면서 언론 매체들로부터(특히 영화나 연속극에서 문제로 부각될 때) 강사들의 실태와 관련해서 인터뷰 요청을 자주 받았다. 그런데 다큐멘터리나

시사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송은 종종 강사들의 하루 일상을 보도하려 하니, '힘겹게 사는' 강사를 소개해 달라고 조르기도 한다. 그러면서 조건까지 붙인다. 여성이면 더 좋겠다는 것이다. 그런 기자들이 그리는 일상은 이런 것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남편과 아이를 깨우고 아침식사를 준비하고, 남편은 직장을 보내고 아이가 어리면 놀이방에 데려다 주고 크면 학교에 보내고, 집안 정리를 대충한 뒤 강의 준비를 하고 학교에 가서(취재 당일 강의를 나가는 학교가 두 군데면 더욱 좋다) 강의를 하고, 시간에 쫓겨 아이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저녁을 준비하고, 퇴근한 남편을 맞이하고 저녁을 먹고, 다 치운 다음에는 졸린 눈을 부비면서 늦게까지 자신의 공부와 다음 강의 준비를 하고 잠자리에 드는 '슈퍼우먼'의 일상. 여자 후배나 선배와 얘기해 보면 이러한 모습이 현실과 별반 다르지는 않다. 그러나 강사들은 이러한 프로에 나가기를 몹서리치게 싫어한다. 나도 싫다. 이와 비슷한 방송프로가 나간 다음에는 한참 동안 그렇게 살기 힘드냐는 주변 사람들의 안쓰러운 표정의 질문 홍수에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강사들의 푸념을 듣게 된다. 어차피 힘든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이고 방송이 나가봤자 해결되는 것이 없으니 창피스럽게 자신의 얼굴과 일상을 드러내지 말고 또 '가문'을 욱보이지 말자

는 것이 요즈음 강사들의 마음이다.

2. 미봉책에 그치는 시간강사 대책들

이렇게 대학강사들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상하면서, 문제해결의 처방도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해결책이라고 제시되는 것 모두 강사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지향하기 보다는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강사문제를 해결하는 일환으로 올해 학술진흥재단은 기초학문연구자들을 위해 연구과제를 설정하고 사상 최대의 액수인 1,200억 원을 배정했다. 이는 대학강사들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문사회연구자들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고, 요즈음 대학강사들은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연구비를 받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다. 그러나 이는 턱없이 낮은 강사료와 내일을 알 수 없는 대학강사들에게 1~3년 동안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링거' 주사의 역할을 하지만, 그것이 지나면 강사문제는 계속된다는 데 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 프로젝트의 한계가 있다.

".....일부 당사자들은 장기적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향후 1~3년 간의 지원으로는 일회성에 그칠 우려를 제기한다"는 기자의 질문에 학술진흥재단 이사장은 현재의 "(학진 프로젝트는) 실업자를 구제하려는 정책은 아니다. 연구를 제대로 해서 좋은 성과를 내면 연구소, 대학 등 갈 곳은 많다. 대학이 현실과 대화하지 않고, 전통적인 연구들 속에 머물러 있는 게 문제다. 대학교육이 변해야 한다"고 갈파한다." 학진 이사장의 말이 기본적으로는 옳다. 그러나 지금의 대학강사들이 연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이나 연구소로 가지 못하

고 있는 것인가? 대학강사로 '봉직' 하고 있는 것은 대학이나 연구소에 있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인가? 그리고 지금의 대학구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대학강사들이 좀더 많은 그리고 좋은 연구결과를 내면 2~3년 후에는 연구원이나 교수로 나갈 길이 많이 생기는가? 현재의 대학구조가 계속되는 한 전임교수 비율은 계속해서 낮은 상태에 있게 되고 노동력 가격이 형편없이 매겨진 대학강사의 문제는 계속되고 기초학문의 위기라는 답론은 거듭 제기될 것이다.

2001년 4월 24일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대학 시간강사 문제 해소대책"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여기서 교육인적자원부는 "시간강사제는 특수한 교과목 운영, 담당 교수 휴직 및 해외 파견 등으로 인한 공백 보충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규정하면서, 특수한 경우에 시행되어야 할 시간강사들의 강의를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에서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가 해소대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약간의 강사료 인상과 매년 1,000명 씩 국립대 전임교수를 3년간 뽑겠다는 것뿐이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는 임기가 내년 초면 끝난다. 혹시라도 정권이 바뀌면 그마저도 유지될 수 있는가? 그리고 강사료가 터무니없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국립대 시간강사의료를 27,000원에서 34,000원으로 올린다고 강사문제가 해결되겠는가? 어쨌든 2001년도에 국립대 강사료는 27,000원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사립대 강사료보다 훨씬 높아졌다. 그리고 올해 다시 7,000원씩 오르면서 차이는 더 벌어졌다. 그런데 강사들의 비중은 그리고 강사들의 수는 사립대학 쪽이 훨씬 더 높은 편이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평가에서 강사료 항목을 집어넣어 사립대의 강

1) 한겨레, 2002년 5월 4일 22면

사료 인상을 평가를 통해 강제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평가를 통해 강제받은 사립대의 강사료는 올해 얼마나 올랐는가? 사립대학 중 강사료가 그나마 높았던 곳은 동결 내지 소폭 인상에 그쳤고, 강사료가 형편없던 대학들의 인상률도 미미하다. 기왕에 나온 교육부 문제이지만, 또 다른 문제는 교육부의 평가를 통한 사립대에 대한 압박이 교육부 관리들도 인정할 정도로 별 압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에 보고할 때 평가를 통해 압박을 하겠다고 보고한다. 그리고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문제를 보여주는 또 다른 일면은 그 날 보고 중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우선 강사들의 현황과 실태가 어떠한지 조사하기 위해 “대학 시간강사 실태조사와 강사제도 개선” 정책 연구를 전국시간강사노동조합²⁾에 의뢰 계획(연구비 1,500만 원)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은 작년에 그러한 연구를 한 적이 없다. 교육부에 조사와 연구를 누가 하나고 물어보니 교수들에게 용역을 주었다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발주하는 프로젝트에는 교수가 꼭 참여해야 하는데,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이 주체적으로 하겠다고 ‘고집’하는 바람에 교수들이 하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 대학강사들은 대학강사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고, 또 그 중 절반 이상이 박사 학위를 갖고 있다. ‘가방끈’이 짧은 노동자들로 구성된 ‘일반’의 노동조합들도 올바른 운동의 방향을 잡기 위해 노동자들의 실태조사를 주체적으로 한다. 그런데 배울 만큼 배운 그리고 대학강사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강사들이 자신들에 관한 실태를 ‘주체적으로’ 조사를 할 수 없다고 교육부는 보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부는 강사들의 강

의담당비율이 높으면 대학평가를 낮게 하는가 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자료를 참고하면, 주요 국립대와 여건이 아주 특별히 좋은 사립대학인 포항공대 등을 종합평가했던 1994년 대교협 종합평가를 제외하고는 대교협 대학종합평가 종합보고서에 의하면 매년 거의 모든 대학들에서 시간강사 의존율이 높다고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할 부분이라고 나타났다.

주요 사립대학을 망라했던 1995년도 대교협의 대학종합평가 종합보고서를 보면, “시간강사 의존율이 높다. 시간강사 의존도는 다른 평가항목과 비교할 때 특히 취약한 분야로, 23개 대학의 평균 시간강사 의존율은 31.06%로 매우 높으며, 23개 대학 중 18개 대학이 25% 이상의 높은 의존도를 보였다. 그리고 35%가 넘는 대학도 7개 대학이나 있어 충분한 전임교수의 확보와 함께 교수들의 수업 부담감소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당시에 어떠한 기준으로 조사했는지 시간강사 의존율이 실제보다 훨씬 낮게 31.06%로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 수치는 어떠한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실과 유리되게 꽤 낮은 시간강사 의존율이다. 내가 대학을 다녔고 현재 강의를 하고 있는 대학도 이 때 조사를 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강사들이 대학교육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텐데 대교협 평가에서는 시간강사들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강사 의존율이 31.06%이든 아니면 실제로 절반 이상이든 강사들은 엄연히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대교협은 ‘무려’ 주당 10시간 이상 강의하는 교수들의 부담만 강조할 뿐, 턱없이 낮은 강사료와 불안정한 처지에 놓여서

2)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은 지난 4월 27일 전강노 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 대상을 “전임교수가 아니면서 대학에서 강의 하는 교수들”로 변경했고, 또 조합의 명칭을 ‘한국비정규직대학교수노동조합’으로 바꾸었다.

연구와 교육 활동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간강사들에 대해서는 애정의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있다.

그리고 대교협 대학종합평가 종합보고서에 '96년, '97년, '98년 계속해서 시간강사 의존도가 높다고 나타났다. 그리고 '99년에도 "교수확보율(교수 1인당 재학생 수 32.62명), 시간강사 의존도(30.99%), 교수 연구년제 참여자 비율(10.10%), 교수의 주당 수업시간 수(10.09시간) 등의 지표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2000년에는 학부 시간당 22,500원의 시간강사의 강사료(학부 시간당 22,500원)를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교수확보율(교수 1인당 재학생 수 30.89명), 시간강사 의존도(29.91%), 교수 연구년제 참여자 비율(4.77%), 교수의 주당 수업시간 수(10.41시간) 등의 지표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매년 다른 대학들을 평가했지만, 교수 대 학생 비율, 교수들의 연구조건 등은 별반 나아지고 있지 않음을 대교협 평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런데 대교협은 대학강사들을 교육의 한 주체로 인정하면서도 그들에 대한 개선책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각 대학의 강사임용규정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강사들은 '연속 6(∼4)학기' 강의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연구년을 가지면서 연구에 전념하라는 선의로 해석하고 싶다. 그러나 교수들 마냥 강사들이 쉬는 동안 급료를 받는가? 아니면 다시 강의에 복귀할 수 있다는 보장이라도 있던가? 전혀 없다. 그러면 10시간 내외의 강의를 했을 때 강사들의 임금은 어떠한가? 대학교육협의회도 이제는 비정규직 대학교원들에 대해 눈을 돌려야 한다. 얼마 전 고인이 된 뇌성마비 1급 장애인 최옥란씨가 정부로부터 받은 말도 안 되는 월 생계 급여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는 '시위'를 한 적이 있다. 강사들

은 그것을 보고 무엇을 생각했을까?

3. 시간강사들의 현실

2001년 10월 5일자 '한겨레'에 "서울대 교수 '연구는 언제'"라는 제하의 기사가 있었다. 그 내용을 보면 "올 9월 현재 전임교원 1인당 주당 강의시간(강의+실험실습)이 1991년(8.9시간) 이래 최고치인 평균 10.2시간을 기록하고 있고, 따라서 서울대 교수의 강의부담이 해마다 가중되고 있어 연구 중심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연구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 기사를 읽은 강사라면 아마 어느 누구나 "나도 1주일에 10시간 정도만 강의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연구와 교육을 제대로 해볼텐데"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다.

그러면 강사들은 1주일에 몇 시간의 강의를 하며, 그에 따른 그네들의 경제실상과 연구여건은 어떠한가?

대학강사들은 한 학기에 여러 대학에서 강의하는 것이 가능하고, 분야에 따라 개설과목 수가 많거나 적기 때문에 강사마다 총 강의시간이 다르다. 대체로 많게는 20~25시간(2002학년도 1학기에 27시간 강의한다는 강사가 있다), 적게는 6~9시간을 강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통 9시간을 강의하는 교수와 비교해 강사들은 왜 그렇게 강의시간 수가 천차만별이며, 무려 교수의 세 배나 되는 시간을 강의하는 사람도 있는가? 그것은 강사직에는 강의가 일정하게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교수들처럼 9시간 만을 할 경우, 생계를 꾸려 갈 수 있는 만큼의 보수가 제공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똑같이 주당 9시간 강의했을 때, 강사의 급여는 교수들이 받는 월급의 1/5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다.

강사가 주당 25시간을 모두 시간당 강의로가 제

일 높은 국립대학에서만 강의한다고 가정할 때 월 340만원을 받게 된다. 그렇지만 그 급여는 강의한 시간만을 계산한 것이며 방학기간(1년에 4~5개월)에는 급여가 한 푼도 나오지 않으므로, 연봉으로 따져보면 2,720만원에 그친다. 그러나 강의소득을 그만큼이나 올릴 수 있는 강사들은 없을 것이다. 강사는 기본적으로 한 학교에서 9시간 이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혹시 강사가 규정을 잘 몰라 12시간을 강의했을 때, 주당 3시간은 무료로 해야 한다. 그러니 25시간 정도를 하려면 그 사람은 최소한 3개 대학에 강의를 나가야 하고, 많은 경우 5~6개 대학이 되는 경우도 있다. 25시간을 그렇게 '물 좋은' 곳을 골라 강의할 수 있다 해도 매주 전국의 이곳저곳을 돌아야 할 테니 쉽지 않은 일이고, 설령 한 학기를 그런 조건 속에서 강의한다손 치더라도 그 다음 학기까지 강의 자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먼 지방이 아니어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엔 너무 불편한 곳에 있는 대학도 많아 서울 근교에 있는 대학에 이르는데 오히려 지방대학보다, 또 강의하는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아끼기 위해 형편에 어울리지 않게 차를 몰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20~25시간을 강의한다고 했을 때, 그 강사는 하루 3~9시간씩을 가르치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부지런히 옮겨다녀야 하며, 가는 곳이 멀다보니 교통비가 만만치 않아 실질 소득을 톡 깎아먹게 된다. 자조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 강사들을 '강사재벌'이라 부른다. 그런데 그 '재벌'의 한달 수입이 200만원 넘기기가 쉽지 않고, 그나마 방학기간(4~5개월)에는 아무 것도 없다. 강의 준비시간에다 길거리에 뿌리고 다니는 시간까지 합치면

여느 노동자들보다도 노동시간이 긴데 반해 그 노동의 대가는 참 알뜰하다.

그런데 같은 시간을 강의하더라도 사립대학은 국립대학보다 강의료가 낮아 더 열악하다. 또 사립대학은 학교에 따라 시간당 강의료가 그야말로 '차율적으로' 책정되는데, 강사료가 다른 학교보다 높은 학교는 강사료를 올해 동결하거나 소폭(진짜로 소폭이다!) 인상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시간당 20,000원 전후에서부터 32,000원에 걸쳐 있다. 국립대의 경우 작년엔 시간당 강사료가 27,000원, 특히 서울대는 30,000원(전업강사인 경우)이었다. 그리고 7,000원이 올라 올해 34,000원이 되었고, 서울대는 37,000원이 되었다.

내 자신이 사립대를 다니면서 국립대 다니는 친구들보다 훨씬 많은 등록금을 내면서 대학을 다녔는데, 대학에서 시간강의를 하면서는 국립대 강사료에 비해 훨씬 낮은 강사료를 받는 웃기지도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강사노조가 학교측과 임단협을 할 때 보직교수들은 사립대학 살림이 국립대학보다 어려워져 강사료를 올려줄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사립대학교수들의 연봉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립대 교수들보다 어떻게 훨씬 더 많은지 모를 일이다.³⁾

강의를 많이 하지 못하는 강사는 어떻게 사는가? 살아가자면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한다. 대학 때부터 했던 초·중·고 학생의 과외(100명 내외의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받는대가 보다 대학에 들어오기 위해서 공부하는 1~2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얻는 수입이 훨씬 더 많다)을 지도하거나, 번역(이것은 요즈음 돈이 안 된다)을 하거나, 심지어는 막노동(이것은 요즈음 자리가 없다)까지도 한

3) 중앙일보, 2001년 9월 24일 30면, "서울대 교수 연봉 전국 최하위 수준", 2001년 9월 23일 30면, "설혼 국회의원실 보도자료"

다. 더러는 30대 중·후반의 나이에도 부모에게 의지하거나 아내를 '등쳐먹는' 생활을 하기도 한다.

결국 강의를 많이 하건 적게 하건 강사들은 자신들의 역량을 십분 발휘해야 할 연구보다는 다른 곳에 힘을 많이 소모한다. 강사들이 맡는 과목은 보통 자신의 전공과는 거리가 먼 교양과목으로 강의준비와 연구를 따로 해야 한다. 그러니, 전공과목을 주로 가르치는 교수도 10시간 강의가 연구를 하기에 과중하다는 마당에, 비교도 안 되는 열악한 여건의 강사가 연구에 몰두하기는 더더욱 힘들다. 그래서 보통 학기 중에는 강의 준비와 민생고를 해결하는 일에 매달리고 연구는 방학 때로 미루게 된다.

그런데 학문의 길을 가려면 연구활동은 학생시절부터 시작해서 교수가 되고 또 퇴임하고 나서도 "쫓겨 계속되어야 한다". 그런 환경에서, 보통의 연구자라면 30대에 연구역량을 쌓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훌륭한 연구성과물을 내게 될 것이다. 수확자들 사이에서 노벨상이라 불리는 펠드상에서 40세 미만인 수확자들에게 수상자격을 제한하는 이유는 학자의 이력에서 바로 30대가 분기점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한창 연구를 해야 할 사람들이 밥벌이를 위한 강의와 아르바이트에 짓눌려 빛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4. 대학개혁은 대학강사 제도를 개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강사들이 연구 이외의 것에 더 마음을 써야 하는 현실은 법과 제도의 문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대학강사들은 법적으로 교원이 아니다. 법률에서 교원의 자격을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로 한정하고 있어(교육공무원법 제 8조와 사립학교법 52조) 대학강사는 그 범주에 들지 못한다. 그

결과 교원으로서의 신분보장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대학강사는 대학강의의 약 50%를 담당하며 교수와 마찬가지로 연구를 해야 하는 이들임에도, 강의 시간에 따라 강의료를 받는 시간강사로서 일용직으로 분류된다. 또한 이러한 법의 이런 홀대는 그들의 연구를 지원하는 제도의 부재로 이어진다. 다시 말해, 딱딱 밀어주는 곳 없는 대부분의 강사는 자신의 연구비를 온전히 스스로 벌어서 마련하느라 오늘 해야 할 연구를 내일로 미루고 강의에 전적으로 매달리거나, 아니면 연구자이면서 동시에 교육자인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이것은 강사들의 연구역량을 오히려 축내는 길이다. 이런 모순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대학강사들이다.

신분이 불안정한 강사들은 경제활동 면에서 '잠재적 실업자'이다. 대학에서는 배정되었던 과목이 폐강되어 강의가 사라지는 일이 흔하여 강의를 한 과목도 맡지 못하면 당장 '참' 실업자가 되는데, 이때 하소연 한마디 할 데가 없다. 신갈에 있는 모 대학을 출강하던 한 강사는 영문도 모른 채 이번 학기 강의 배정에 제외되었는데, 그 사실을 학교나 학과의 그 어느 누구도 통보해 주지 않아 개강한 뒤 학교에 전화해 보고서야 알았다고 한다. 이렇듯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의 고통스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어이없이 강사신분을 잃을 수 있는 것은 강사직이 학기마다 새로이 학교와 '계약'을 맺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다른 어떤 비정규직 노동자들보다도 유동성이 심한 대학강사는 대학(연락은 보통 조교가 한다)이 그 학기 강의를 주면 학생들에게 '교수님' 소리를 듣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아니다. 그리고 연구자로서 연명할 수 있는 최소의 사회적 관계마저 끊어지는 것이다.

또한 실업자의 길은 사회 다른 분야에서도 그렇듯 남자강사보다 여자강사에게 더 쉽게 찾아온다.

연구업적 등에 관계없이 남편이 있다는, 집안이 살만하다는 이유로 학과에 구조조정이 있어 강의가 줄어들 때 '해족' 1순위에 올리거나 남자강사보다 강의를 적게 주는 곳도 있다. 심지어 어느 모 대학에는 여성전용주차장이 있는데 여성강사들이 차를 세울 수 없게 되어 있다. 여성전용주차장은 여성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만든 것이겠지만, 여성강사들은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여성인지 지상에 위치한 여성주차장이 아니라 건물 지하에 위치한 주차장에 차를 세워야 한다. 최고의 학부를 사랑하는 대학에서 그런 전근대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강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험겨운 여건 속에서 강사가 많은 적든 강의에 의존하며 연구를 끊임없이 해 나가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강사들은 장기적인 연구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싶어도 주변 상황이 그 포부를 바로 펼쳐놓을 용기를 주지 않는다. 제도적으로 아무런 뒷받침도 해주지 않고 교육과 연구에 힘을 쏟으라고 격려한다면 그건 어불성설이다.

대학강사들이 같은 일을 하는 교수와 큰 신분의 차이를 맛보며 여러 곳을 동분서주 해야 하는 이 모든 문제들은, 강사들을 대학사회의 교육자이며 연구자로 끌어안기에 인색했던 결과이다. 일단 교원으로 인정받으면, 강의가 보장되고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된 강의료의 현실화와 적절한 연구 지원이 있을 테니, 강사들이 지금까지처럼 교육과 연구에 별도

움이 못되는 일에 기운을 다 빼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한 개인이 학문의 길을 자청했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스스로 감내하라는 방관적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이들 인적자원이 개인을 넘어 곧 사회와 국가의 자원임을 안다면 말이다. 잘못된 교육을 개혁한다고 난리궂을 하고 있는 정부와 그 동안 잘못된 법과 제도의 보호 아래 고급인력을 터무니없이 '저렴한 금액'으로 책정해 온 대학들은, 진정 좀더 나은 강의와 연구를 바란다면, 현재의 강사문제를 강사료 몇 푼 인상이나 강사와 다르지 않은 비정규직 대학교수들에게 강의 몰아주기 등의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개선책을 확립하는 데 힘써야 한다. 즉, 강사들이 10시간 정도 강의하면서도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문화생활을 하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적극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일용잡급직의 강사들을 정식 교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다. 요즈음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문제는 노동문제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강사와 교수 사이의 차이는 인간차별에 가깝고, 이는 노동문제를 넘어서 인권침해 사례에 해당될 정도의 심각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고쳐지지 않는 한 대학교육개혁은 제대로 수행될 수 없고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바로 서지 못하게 된다. 바로 대학개혁은 바로 대학강사와 비정규직 대학교수 문제를 풀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박원**

